

연구논문

문턱에 선 아버지들: 한국 드라마에 나타난 부성성 변화 연구*

박윤주** · 김태형***

〈국문초록〉

오늘날 한국사회는 가족 공동체의 밖에 서있던 아버지가 문 안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중매체들은 집 안으로 들어온 부성성을 이상적으로 묘사한다. 본 논문은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부성성 변화의 원인과, 변화에 대한 아버지들의 반응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산업화 시대와 신자유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국민드라마인 〈여로〉와 〈왕가네 식구들〉에 묘사된 부성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부성성의 확장은 남성이 더 이상 유일한 생계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경제 구조 하에서 강제된 사회현상이며, 가족의 울타리 속으로 떠밀려온 아버지들은 끊임없이 전통적 부성성의 복원을 꿈꾼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는 확장된 부성성이 지닌 강제성을 밝힘으로써 부성성 확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당위적 차원에서 벗어나 심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강제된 부성성의 확장이라는 현실에 다양하게 대응하는 일상 속 아버지들에 대한 후속연구의 바탕을 제공한다.

주제어: 부성성, 산업화, 신자유주의, 〈여로〉, 〈왕가네 식구들〉

* 본 논문은 2017년 10월 13일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주저자,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스페인어중남미학전공 부교수(yunjoopark@kmu.ac.kr)

*** 공동저자,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미국학전공 조교수(thkim11@gw.kmu.ac.kr)

© 2017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서론

『뉴욕저지』(*The New Yorker*)에 기고한 “떨어져나온 부성성”(Fatherhood Apart)이라는 글에서 저자 폴 엘리(Paul Elie, 2015)는 이탈리아의 사진작가 지오반니 가르치올리(Giovanni Garciolli)의 작품, 〈가족사진〉에 등장하는 문턱에 선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로서 자신이 겪는 내적인 변화를 거의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문 밖의 세계와 문 안의 세계 사이에 걸쳐 선, 아슬아슬하게 양 세계를 오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전통적으로 가정 밖의 세계에 속했던 아버지의 역할이 가정 안으로 확대될 것을 요구하는 부성성¹⁾ 확장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내면을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턱에 선 아버지’라는 개념에 깊이 공감하는 아버지들은 비단 미국과 이탈리아에만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소위 아버지의 육아 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은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여겨지던 육아를 어머니 대신 해내는 아버지들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육아를 장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성공은 가정 밖에서 충실한 역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이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없는, 부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의 변화를 반영한다. 성공한 격투기 선수이자 딸의 머리를 깎아주는 자상한 아버지, 훌륭한 축구선수이자 돌이 갓 지난 아이들을 위해 이벤트를 열 줄 아는 아버지에 열광하는 한국사회를 바라보자면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당위적으로 옳으나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국사회가 아버지들이 가정의 안과 밖에서 모두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

1) 본 논문에서 부성성은 “부성이 자녀에게 나타내는 다양한 성향을 의미(이란·백선기, 2016: 108)하며 ‘아버지 되기’ 혹은 ‘아버지 노릇’이라고 풀어줄 수 있다. ‘아버지 되기’ 혹은 ‘아버지 노릇’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아버지 되기의 형태를 담을 수 있는 가장 넓고 광범위한 ‘부성성’ 개념을 사용하였다.

닌지 질문하게 만든다. 언제부터 그리고 왜 우리는 아버지들에게 문 밖의 세계에서만큼 문 안의 세계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을까? 무엇이 이상적인 부성성의 확대를 견인했을까? OECD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과로사의 나라에서 아버지들은 가정 안으로까지 확장된 부성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국민드라마인 〈여로〉와 〈왕가네 식구들〉을 분석하였다. 〈여로〉는 1972년 4월 3일부터 같은 해 12월 29일까지 일일연속극으로 방영되었으며 최대 70%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한국 방송사의 대표적인 국민드라마로 등극하였다(한국방송공사, 1977: 582).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드러난 가족의 문제를 소위 ‘가족리얼리즘’을 통해 현실적으로 묘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한국방송공사, 2013) 〈왕가네 식구들〉 또한 한국방송공사에서 제작한 주말연속극으로 2013년 8월 31일부터 2014년 2월 16일까지 방영되었으며, 최고 시청률 48.3%를 기록하였다. 〈왕가네 식구들〉은 극단적인 등장인물과 인물들 간의 첨예한 갈등구조로 인하여 막장드라마라는 오명을 얻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가네 식구들〉은 많은 시청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가족의 민낯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윤석진, 2014).

본 연구는 이 두 편의 드라마에 나타난 부성성을 비교함으로써 산업화 시대와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기대되는 부성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부성성 변화의 원인이 사회경제적 원인,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일어난 아버지의 경제력 약화 및 어머니의 노동시장 진출에서 기인한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아버지의 경제력 약화로 인한 부성성의 확대가 경제력이 회복되면 중단될 수 있는 한시적인 현상으로 드라마 안에서 그려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왕가네 식구들〉 속

아버지들은 확장된 부성성을 거부하고 전통적 부성성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이는 한국사회에서의 부성성 확장이 기존에 논의되었던 ‘새로운 아버지(New Fatherhood)’ 논의나 메트로섹슈얼리티에서 주장하는 자발적 부성성 확장과는 달리 강제성을 띠는 현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사회에서의 부성성 확장이 부성성의 주체인 아버지들의 성평등적 자각이나 ‘새로운 아버지 되기’의 결과가 아니라 경제력 약화에 의해 강요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변화하는 가족구조, 특히 성역할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작업이다. 또한 이러한 자각은 오늘날 한국사회가 부성성 확장과 출산기피 그리고 여성혐오까지 동시에 경험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2. 이론적 배경

아버지들이 경험하는 성역할의 변화가 갖는 사회·문화적 중요성에 비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게다가 이 부족한 부성성 관련 연구조차 부성의 주체인 남성을 객체화하는 연구가 다수를 이룬다. 주로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발표되는 부성성 확장에 대한 연구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재립 외, 2012; 전혜경 외, 2012; 정금자·박미라, 2013; 채진영, 2013)로 수렴된다. 즉 많은 연구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아버지가 아닌, 객체화된 변수로서 아버지의 부재 혹은 존재가 자녀의 성장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아버지를 자녀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요인의 하나로 객체화시킴으로써 부성의 주체인 남성의 사회 및 심리적 경험에 대한 고찰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부성성의 주체로서의 남성성에 대한 연구 중 본 연구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성과는 메트로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부성성의 변화를 이해하는 접근법이다. 이는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여성성과 남성성을 두루 갖춘 인간으로서의 남성성이 우월하다고 평가받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남성성의 변화가 부성성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메트로섹슈얼리티적 부성성은 기존의 아버지의 역할을 확장하여 어머니의 역할까지도 받아들이는 부성성이며, 엄격한 아버지를 벗어나 친밀하고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픈 현대 남성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살츠먼 외, 2006; Messner, 1996). 그러나 메트로섹슈얼리티의 개념으로는 남성지배구조의 힘의 변화가 아니라 스타일의 변화라는 피상적인 현상만을 설명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새겨들 만하다(백선기·김남일, 2006). 즉 메트로섹슈얼리티가 도전하는 것이 남성 지배구조 자체가 아니라 남성지배구조의 스타일이라면, 친구 같은 아버지는 가부장적 부성성의 새로운 스타일일 뿐 본원적인 부성성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동옥, 2014). 하지만 메트로섹슈얼리티로는 가부장적 부성성의 본질적 변화 혹은 유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이동옥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메트로섹슈얼리티를 통하여 부성성의 변화 — 스타일의 변화에 불과할지라도 — 를 고찰하고자하는 시도는 부성성 변화가 갖는 자발성을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성성의 확장이라는 현상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 아버지의 자발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면적 자발성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메트로섹슈얼리티 논의는 흥미로우며, 부성성 변화의 주체인 남성성에 대한 후속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최근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부성성의 변화는 IMF 경제위기 이후 급변한 경제구조의 결과물이라는 데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듯하다(강이수,

2011; 김정환·이선이, 2014; 조은, 2008). 즉, IMF 경제위기와 이후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전통적 남성 1인 생계부양자 가족을 2인 부양자 가족으로 전환시켰으며, 이는 부권위기담론과 부성성 변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의 경제력 약화가 아버지의 가족 내 권력 약화로 이어졌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놓이게 된 아버지는 부양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양육자로서의 역할 또한 맡게 되었다. 이러한 설명들은 아버지의 양육자로서의 역할은 도구주의적인 양상을 띤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최근 한국사회에서 목도되는 부성성의 확장은 노동시장에 진출한 여성의 빈자리를 채우는 도구로서 발생했을 뿐, 성평등적 관점에 근거한 아버지 역할의 변화나 재해석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조은, 2004).

IMF 경제위기와 그 후 추진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한국의 가족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건이다. 이 시기를 거쳐 전통적인 가족이 붕괴되고 새로운 가족의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성성의 변화에 있어서도 IMF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경제적 구조가 부성성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데에서 논의가 중단되고 남성들의 부성성 확장을 도구주의적 관점에서만 해석한다면, 이 또한 남성들이 부성성의 변화를 자신의 삶 속에서 인지하고 해석하고 발현하는 주체적 과정에 대한 고찰을 가로막을 수 있다. 도구적 관점을 넘어 사회적으로 기대되고 혹은 강요되는 부성성을 남성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인지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만 경제적 변인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부성성과 IMF 경제위기 이후의 부성성이 연구의 대상이 된 두 드라마에서 어떻게 다르게 그려지는지를 검토하였다. 전통적인 부성성과 IMF 경제위기 이후의 부성성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부성성의 외피를 관통하는 가부장적인 부성성의 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새로이 등장한 부성성이 전통적 부성성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새로운 아버지(New Fatherhood)’ 논의나 메트로섹슈얼리티의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각 드라마의 아버지들과 등장인물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다양한 유형의 아버지들이 주어진 부성성을 해석하고 이에 적응하는 양상을 살펴 보았다. 즉, 각 드라마의 아버지들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부성성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아버지들이 부성성의 확장에 대응하는 방식 또한 연구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1972년에 방영된 〈여로〉와 2013년에 방영된 〈왕가네 식구들〉이다. 두 드라마는 모두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당시 국민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았고, 각각 전후 산업화시대와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인기를 누렸다는 점에서 부성성의 변화를 가늠하는 데에 필요한 핵심요소인 시대상을 반영한다. 또한 두 드라마 모두 대가족을 중심으로 다양한 아버지 캐릭터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부성 연구를 위한 풍부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두 드라마가 방영된 시점 또한 두 드라마를 선택한 이유이다. 〈여로〉의 경우 1972년 박정희 군사독재 체제 하에서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점에 방영되어 산업화 당시의 부성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왕가네 식구들〉의 경우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경제정책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2013년에 방영되어 신자유주의가 부성성에 끼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한다.

드라마를 통해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여성성 및 남성성을 분석하는 논문은 단순한 영화 혹은 드라마의 텍스트 분석을 넘어 영화와 드라마에 반영된 사회상을 탐구하는 시도로도 유의미하다. 본 연구 또한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두 편의 국민드라마에 대한 질적 콘텐츠 분석을 통하여 여성성의 변화와 이에 대한 아버지들의 반응을 가늠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국민드라마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드라마 중에서도 국민드라마가 갖는 사회 및 문화적 의미 때문이다. 국민드라마는 국가에 의해서 규정된 가치를 전파하는 용도로 제작된 드라마 혹은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윤리적 혹은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드라마를 의미한다(Rimer, 2014: 117). 두 가지 정의 모두 국민드라마는 주류적 가치를 반영하고 전파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드라마는 작가나 연출가의 예술가적 판단에 의한 창작물이기보다는 시류를 따르면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다른 장르에 비하여 주어진 사회상 즉 주류적 사회상을 충실히 반영하며, 그 결과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회상을 고찰해볼 수 있는 유리한 공간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직접적 분석 대상은 1973년 작가 이남섭이 자신의 대본에 기초해서 발간한 소설인 〈여로〉와 〈왕가네 식구들〉 대본이다. 드라마를 직접 시청하지 않고 대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여로〉의 영상본이 마지막 회를 제외하고는 남아있지 않다는 점과 텍스트 분석을 위하여 글로 표현된 대본을 읽고 분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다양한 방법론적 고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사회현상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그 사회현상이 반영된 드라마를 분석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엄밀하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 사회로부터

주어진 부성성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에스노그래피를 진행하는 것이 드라마 속 주인공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보다 더욱 정확한 연구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본 연구를 기초로 향후 에스노그래피를 활용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를 통한 부성성 변화에 대한 고찰이 갖는 장점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지적했듯이 주류의 시각을 반영하여 대중적 인기를 끄는 국민드라마에 투영된 사회상을 고찰하는 것은 마치 거대한 문화적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대규모의 에스노그래피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중적인 국민드라마에 투영된 부성성과 이를 둘러싼 상호작용을 고찰하고, 여기서 확인된 내용들을 심도 깊은 에스노그래피를 통하여 확인하고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면 두 가지 방법론이 갖는 취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트리앵글레이션(triangulation)이라는 창의적 방법론의 도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여로〉: 문 밖에 서있는 주연으로서의 아버지

〈여로〉는 분이라는 여성이 지적장애인인 영구와 혼인하면서 시작되며, 분이의 아내, 며느리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삶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된다. 수백 회에 이르는 방영분은 대부분 분이에게 일어난 혹은 분이를 중심으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이 전개되고 해결되는 플롯을 따른다. 특히 분이와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분이의 시어머니 윤씨는 분이를 학대하고 모함하며 심지어 자신의 손주를 임신한 분이에게 약을 먹여 낙태를 시키는 악행마저 서슴지 않는다. 분이와 윤씨의 이러한 갈등들은 대부분 분이의 억

울함이 해소되고 윤씨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 벌을 받는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구도 속에서 해결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즉 두 여성의 갈등을 해소하고 윤씨의 악행에 대한 징벌을 내리는 주체로서 〈여로〉에는 최주사라는 강력한 아버지가 등장한다.

최주사는 영구의 아버지로 최씨 집안의 가장이자 마을의 어른이다. 그는 자신의 가정에서 뿐 아니라 가문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서도 권위를 지닌 어른이며,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등 도덕적 우월성까지 갖춘 인물로 그려진다. 최주사는 몸이 성치 않은 아들과 혼인한 분이를 보호하고 부인 윤씨의 악행을 징벌하며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한다. 지주로 등장하는 최주사는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가족들의 경제생활을 통제한다. 집안 살림을 맡은 윤씨는 최주사의 허락 없이 집안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고, 행여 최주사의 사랑이 분이와 분이가 낳을 아이에게 쏠릴까 전전긍긍한다.

최주사가 집안에서 행사하는 강력한 권력에 대한 묘사는 최주사가 윤씨의 동생을 불러 윤씨와 윤씨가 낳은 딸 영숙까지 함께 처가로 데려가라고 명령하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룬다. 분이를 모함하려는 윤씨와 영숙의 계획을 알아챈 최주사는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는 모녀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을 결정할 권리까지 갖고 있다.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윤씨 앞에서 최주사는 처남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자고로 사람 중에 제일 못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니... 남을 모함하는 사람일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둘도 없는 착한 며느리를 내쫓으려고 모함했더니... 안됐지만 자네 집으로 데려가 주게(이남섭, 1973: 70).

최주사가 자신의 부인과 딸을 쫓아내는 장면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경제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최주사라는 인물이 적극적으로 부인과 딸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가족들의 행동거지를 판단하고 상벌을 내리는 역할에는 충실하지만 막상 자신도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 육아나 훈육의 장에 들어서지는 않는다. 부인과 딸을 쫓아내는 장면에서도 부인과 딸에게 잘잘못을 따지거나 분이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통을 시도하기 보다는 증거를 취합하여 사태를 파악한 후 하인을 시켜 처남을 부르고 처남에게 최종 판결문을 전달하는 식이다. 극 전반에서 최주사는 이러한 방관자 내지는 외부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자식들에 대한 그의 태도는 훈육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자식들 행동의 잘잘못을 가려 상벌을 결정하는 재판관의 그것이다.

윤씨와 영숙의 악행에 대해서 뿐 아니라 그의 아들 영구의 장애에 대해서도 최주사는 같은 태도를 견지한다. 최주사는 아들의 장애를 안타까워할지언정 교육을 통하여 문제를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는다. 최주사가 영구의 지적장애와 대면하는 장면에서 관찰되는 것은 교육보다는 폭력이다. 동네 아이들이 엿을 준다고 영구를 꼬여 빨래터 아낙들을 추행하도록 시키는 장면에서 엿을 받은 영구를 본 최주사는 “이놈, 집안 망신을 시켜도 분수가 있지 응, 이놈아”(이남섭, 1973: 13)를 외치며 집안으로 끌고 와 마구 때리기 시작한다. 울상이 된 하인들이 “영감마님, 죽 습니다요, 도련님 죽어요 영감마님!”을 외치며 만류했지만 최주사는 “피가 나도록” 영구의 종아리를 때린다. 최주사는 영구에게 영구의 행동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영구의 잘못된 행동이 “집안”에 망신을 끼치는 것에 분노할 뿐 영구가 겪는 장애인으로서의 어려움과 그의 미래에 대해 아버지로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집안의 가장이며, 가족과 바깥 세계를 중재하고, 경제권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생사

여탈권을 모두 쥐고 있는 아버지는 정작 아들의 교육에는 무심한 방관자인 것이다.

직접 영구의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최주사는 며느리 분이 아들을 교육하는 장면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이는 마치 아이를 가르치는 어머니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것과 닮았다. 늦은 밤까지 영구에게 숫자를 가르치는 분이 덕분에 숫자를 셀 수 있게 된 영구를 바라보며 흡족한 미소를 짓는가 하면(이남섭, 1973: 48), 분이 일하는 사이 혼자 숫자를 외우느라 고생하고 있는 영구에게 숫자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이남섭, 1973: 75).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분이의 교육에 도움을 주려는 행위일 뿐 아버지로서 영구의 교육에 주체적으로 임하려는 노력으로 읽히기에는 소극적인 행동들이다.

최주사라는 인물은 가족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쥔 전통적인 가부장적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는 경제권은 물론 가족구성원의 운명까지도 쥐락펴락하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속에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절대적인 권력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는 문밖에 서있는 아버지이다.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의 교육에도,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갈등에도 나아가 손주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도 그는 지켜보고 판단하고 응징하지만 결코 주체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며느리의 아들 교육을 지켜보고, 시어머니의 며느리 구박을 응징하며, 손주의 탄생과 죽음을 기뻐하고 애도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다. 최주사가 강력한 행동력을 발휘하는 순간은 독립운동에 가담한 청년 상준을 숨기려다 옥살이를 하거나, 부정한 과거가 있다고 모함을 당한 분이 문제에 대해 집안 어른들과 의논을 하는 순간이다. 가족 안에서는 방관자 내지는 재관관 같은 외부자의 모습을 보이던 최주사가 가족 밖에서 적극성을 띠고 주체적이 되는 모습에서 가족 내에서 절대적 권력을

권 전통적인 가부장들의 공간은 역설적이게도 가족의 내부가 아니라 가족의 외부임이 드러난다.

최주사의 강력한 가부장적 권력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유교적 아버지상에 비춰볼 때 최주사의 권력은 유교적 질서에서 기인한다(함인희, 1997)고 볼 수도 있다. 자신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병에 걸린 시아버지를 돌보는 분이를 최주사가 걱정하자 분이는 “아버님은 이 집안의 기둥이신데, 만에 하나라도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아버님은 한 분 밖에 안 계시지만 며느리는 다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버님!”(이남섭, 1973: 55)이라고 대답한다. 이런 분이의 태도는 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유교적 사고가 최주사의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견고해 보이는 최주사의 권력에 균열이 생기는 지점을 분석해보면 최주사의 권력을 지탱하는 핵심은 유교적 질서라기보다는 경제력임을 알 수 있다.

최주사는 일본순사에게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반신불수가 되고 설상가상으로 윤씨와 영숙의 실수로 가산마저 탕진하게 된다. 가난하고 병든 아버지가 된 최주사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영구, 윤씨, 영숙 그리고 손주 2명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길에 오른다. 피난생활 동안 최주사는 가족에게 어떠한 경제적 도움도 줄 수 없는 신세가 된다. 구두땀이가 된 영구와 다방에서 일하는 영숙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처지가 된 최주사의 권력은 급속도로 약화된다. 최주사의 가부장으로서의 권력이 약화된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는 영숙이 극중 가장 지독한 악인인 달중으로부터 돈을 받자 최주사가 이를 돌려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남섭, 1973: 268)이다.

“(최주사) 그 돈… 그대루 돌려… 줘…”

이윽고 침묵을 깨고 최주사가 명령하듯 말했다.

“돌려 주다뇨!”

윤씨가 맞섰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구요. 옛날 생각만 하시지 마세요.”

“그래두... 돌려... 줘...”

최주사가 언성을 높였다.

“관두세요.”

윤씨는 돈을 옷함지에 넣고 덮었다. 최주사는 서글픈 눈짓으로 윤씨를 멍하니 바라볼 따름이었다(이남섭, 1973: 268-269).

윤씨와 영숙이를 순식간에 집에서 내쫓던 서슬 퍼런 가부장으로서의 아버지는 경제력을 상실한 이후 “옛날 생각만 하는” 서글픈 신세가 되었다. 결국 추상같던 아버지의 권력이 유교적 문화나 질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경제력에서 기인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추락한 최주사의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계승한 사람이 놀랍게도 어머니 윤씨가 아니라 지적장애마저 극복한 듯 묘사되는 영구라는 점은 흥미롭다. 경제력을 잃은 최주사를 대신하여 어머니와 건강한 딸보다는 지적장애를 지닌 아들을 가장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여로〉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시스템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산업사회의 부성성을 보여준다. 구두를 닦으며 생계를 담당하는 영구는 최주사의 빈자리를 채우는 아버지로 거듭나고, 비록 아버지 최주사의 전통적 아버지상을 그대로 계승하지는 못하지만 집안의 가장으로 아버지를 봉양하고 윤씨와 영숙을 다독이는 ‘집안의 기둥’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로〉는 아버지인 최주사의 가부장적 권력을 중심으로 며느리인 분이와 시어머니인 윤씨가 갈등하는 서사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구조 자체가 드라마가 방영된 1970년대 산업화 시기 한국사회에서 기대되는 부성성을 상징한다.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으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이다. 또한 아버지는 가족 구성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평가한다. 아버지가 제시하는

도덕적 잣대에 비추어 구성원들의 행위는 미담이 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듯 강력한 권력을 지닌 아버지는 역설적이게도 가족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밖에서 존재한다. 특히 이 시절 아버지에게 기대되었던 부성성은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양육을 관찰하고 그 결과가 가족 전체 혹은 '가문'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징벌을 내리거나 상을 주는 기능에 국한된다.

문 밖에서 문 안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아버지였던 최주사는 그러나 권력의 근원이었던 경제력이 상실되는 순간 권력자의 지위를 아들에게 물려준다. 최주사의 경제력에 비하여 보잘 것 없는 경제력을 지녔으나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게 된 영구는 지적장애마저 어느 정도 극복하고 의젓한 아버지가 되어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훈육한다. 어머니와 건강한 여동생이 있는 집안에서도 가장의 위치는 아들에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아들은 개인적 장애를 극복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최주사의 몰락이 전통적 가부장제의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계를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부성을 강조하는 〈여로〉의 메시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생계를 담당하는 유일한 가족구성원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만들어진 〈왕가네 식구들〉에서도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된다. 경제적으로 생계를 온전히 담당할 수 있는 아버지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 〈왕가네 식구들〉에서도 생계를 책임지는 경제력을 지닌 아버지가 이상적 아버지로 묘사되고 그렇지 못한 아버지들이 끊임없이 조롱과 원망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다음 장에서는 1970년대 산업화 시대의 가부장적 부성성이 200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의 확장된 부성성 속에서도 계승되고 유지되는 현실을 본격적으로 고찰하였다.

5. <왕가네 식구들>: 문 안으로 떠밀려 들어온 조연으로서의 아버지

<왕가네 식구들>은 왕가네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는 드라마이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던 <여로>와 유사하게 <왕가네 식구들> 또한 왕가네 여자들의 좌충우돌을 통해 드라마가 진행된다. <왕가네 식구들>과 <여로>가 다른 점이라면 왕가네에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3명의 성인이 된 딸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어머니를 포함한 4명의 여성들의 배우자인 아버지와 3명의 사위들이 서로 다른 처지에서 부성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네 명의 아버지들 중 어느 누구도 <여로>의 최주사와 같이 가정 내 강력한 권력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며, 모두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경제력을 상실하고 가족 유일의 부양자로서의 입지를 다지지 못하거나 그러한 처지에 놓이는 경험을 하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명의 아버지들이 모두 경제력을 회복하거나 회복할 것을 꿈꾸며, 이러한 경제력의 복원이 아버지들의 가족 내 권력 복원을 의미하는 점은 흥미롭다.

<왕가네 식구들>에서 <여로>의 최주사와 대비될 수 있는 인물은 아버지 왕봉이다. 그는 왕가네의 가장으로 네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이며 어머니와 남동생까지 부양한다. 하지만 최주사가 가족 내에서 구성원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면 왕봉의 극중에서의 비중과 가족 내에서의 권력은 조연에 불과하다. <여로>의 윤씨와 대비되는 엄마 양금은 딸들 중 첫째 딸인 수박만을 편애하고 둘째 딸인 호박을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한다. 하지만 윤씨의 악행을 단호히 처벌하던 최주사와는 달리 왕봉은 양금의 악행에 대하여 악행의 수위를 낮춰줄 것을 호소하거나 양금의 행동에 동조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호박의 남편인 세달에게 호박에 대한 차별을 지적받은 양금이 집을 나가는 사건이다.

세달의 말이 틀린 것이 없다고 두둔하는 왕봉의 반응에 분노한 앙금은 수박의 집으로 가출한다. 수박의 집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앙금과는 달리 집에 남겨진 왕봉은 앙금이 담당하던 육아와 요리 등의 가사노동을 해결할 수 없어 난감해진다. 결국 왕봉은 자신이 두둔했던 세달을 찾아가 앙금에게 사과할 것을 종용하고, 따로 수박의 집에 찾아가 앙금을 데려 온다. 수박의 표현으로는 일종의 “백기”를 드는 장면이다.

윤씨의 악행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던 최주사와는 달리 왕봉이 앙금의 악행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사노동이다. 갓 돌이 지난 손주의 분유를 탈 수도 양말을 빨아 놓거나 정리하지도 못하는 왕봉은 그 모든 일을 하인들이 해주던 최주사에 비하여 취약한 입지에 놓여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가사노동을 중단해버린 가정에서 따로 가사노동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징벌을 내릴 수 있는 입지 또한 상실한다.

호박의 남편인 세달의 불륜 소식을 들은 왕봉이 앙금에게 그녀의 호박에 대한 차별이 호박의 불행한 삶을 가져왔다고 따지는 장면에서도 왕봉의 취약한 경제력이 앙금과의 권력 관계에 끼치는 영향이 드러난다.

왕봉: 그저 돈만 주면 헤쳐거리고… 당신이 장모야? (….) 당신, 속물이야.

앙금: (바르르) 뭐요? 속물? 내가 속물이야? 살려고 악착같이 바들바들 떨고 산 사람보고 속물?

왕봉: 그래 속물! (눈물 글썽) 당신 참 나빠. 나한테 시집와서 몸고생 맘고생 한 건 인정하지만, 당신 엄마자격 없는 여자야.

앙금: (울면서) 내가 나쁜 여자야? 내가 속물이야? 나 이렇게 만든 거 누구데? 돈돈거린다고? 돈밖에 모르는 속물이라고? 쥐꼬리 반토막도 안되는 선생월급으로, 시어머니 시아버지에 넷이나 되는 시동생시누이에 다섯이나 되는 내 자식들하고 먹고 살자니 돈돈 거렸다. 왜! (….) 이 집 장만 누가 했는데? 내입에 들어가는 것도 발발 떨면

서 악착같이 모으고 빨리고 딱지장사까지 해서 산 집이야!((왕가네 식구들), 2013).

왕봉과 앙금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왕봉은 가족의 유일한 생계부양자로서 기대되는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고 앙금은 그런 왕봉의 부족한 경제력을 악착같은 생활력으로 극복한 어머니로 묘사된다. 따라서 앙금의 모진 행동, 돈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식에 대한 차별은 모두 왕봉의 부족한 경제력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물이며, 앙금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된다. 이런 구도 속에서 아버지 왕봉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좁아진 가장으로서의 입지와 권력이 곧 아버지의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앞서 가출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왕봉은 가사노동에 부적합하며 손주의 육아에도 소극적이다. 일관되게 “아이는 엄마가 돌봐야한다”고 주장하며 육아에 무관심한 수박을 타하는 왕봉의 태도에서 왕봉은 경제력을 상실하였으나 가부장적 아버지의 가치를 놓지 못하는 문턱 위의 아버지를 연상케 한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가족 내 권력은 상실했지만 전통적 아버지의 부성성을 고수하려는 왕봉과 달리 호박의 남편 세달은 경제력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가사에 전념하고 육아를 담당하는 아버지로 그려진다. 세달은 생활력 강하고 능력 있는 아내인 호박에게 일찌감치 생계부양자의 자리를 넘겨주고 백수생활을 이어오다 뒤늦게 취직한 호텔에 서 상관과 불륜을 저지르는 인물이다. 경제적 능력이 복원되고 더 능력 있는 여성과의 재혼까지 가능해 보이자 호박과 아들 둘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던 세달이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육아를 책임지는 ‘새로운 아버지’로 거듭나게 된 계기는 불륜여성과의 파경, 또 한 번의 실직 그리고 호박의 이혼선언이다. 비참한 신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달은 호박에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호박은 세달에게 방통(첫째 아들)이 열 살 될 때

까지만 아빠 노릇을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세달의 아빠노릇은 전업 남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달의 전업남편 생활은 모든 일화에서 코믹하게 그려진다. 호박은 전형적인 가부장적 남편처럼 살림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달을 뒹달하고 세달은 가족의 생계부양자인 호박의 눈치를 보며 “술 좀만 먹고 일찍 오세요”를 외친다. 역전된 성역할을 희화하는 장면은 호박이 세달의 살림살이가 험프다며 타박하는 장면에서 극대화된다.

호박: 장볼 때 규모 있게 써. 아무케나 되는대로 사다 나르다간 집안 말
어먹지. 일주일에 한 번 영수증 첨부해서 가계부 검사 맡어.

세달: 알았어.

살라(시어머니): 애 잡는다 애 잡아. (세달) 넌 마누라 앞에서 무릎은 왜
꿇고 앉어? 편하게 앉지.

새달: 난 이게 편해. 엄만 들어가라니까.

(…)

살라(시어머니): 신통에미(호박) 너 어디 가서 검사 한 번 받아봐라. 남자
아닌가. 세달이 너도 검사해봐. 어떻게 둘이 짝 바뀌더니
궁작도 딱 맞아떨어지나(〈왕가네 식구들〉, 2013).

경제력을 상실한 아들이 가사노동과 육아에 전념하는 가족 안의 아버지
로 거듭난 상황을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의 대사에서 여전히 가사노동과
육아는 여성의 일이며 생계부양자의 역할은 남성의 일이라는 점이 강조된
다. 세달과 호박의 성역할 교환이 진정한 성역할의 교환이 되기 어려운 이
유는 가사노동과 육아가 여전히 생계부양을 책임지는 노동보다 덜 중요하
고 하찮은 일로 그려지고 있으며, 무능력하고 불륜을 일삼았던 철부지 남
편이 맡게 되는 징벌적이며 한시적인 노동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만난 반장 아주머니와 세달의 대화는 이런 현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세달: 안녕하세요. 제가 마침 월차라 애들 엄마 쉬게 해줄라고 쓰레기 버리러 나온 겁니다. 하하.

반장: 안그래도 돼요. 이미 소문 다 났어요. 우리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 많아요. 첩피해하지 마세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평생 할건데...

세달: 평생 할 건 아니고 다니던 회사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잠깐 쉬는 중이라...(〈왕가네 식구들〉, 2013).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 세달과 아들들의 관계도 복원된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만들고 숙제를 챙기는 세달은 육아의 방관자였던 가부장적 아버지를 벗어나 가족 안으로 들어온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육아에 전념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하여 아이들은 “아빠가 엄마고 엄마가 아빠야?”라는 질문으로 세달과 호박의 관계가 전형적인 성역할을 벗어나있음을 지적한다.

결국 세달은 친구인 왕돈에게 경제력의 부재로 가정이라는 공간으로 내몰린 조연급 아버지의 불안을 털어놓는다.

세달: (한잔 마시고 탁 놓으며) 나 자신이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다. 니조카(호박)는 날게 달고 날아 오르는데, 날개도 한두개가 아니고 한 열댓개 주렁주렁 달고 날아오르는데, 난 추락하다 추락하다 지하바다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다.

왕돈: 통치면 되겠네 뭐.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호박인 날아오르고 넌 지하로 꼬나막고, 둘이 통치면 평평한 일층 되겠네.

(...)

세달: (호박인) 밖에서 인기도 짱인가봐. (...) 맘 같아선 그놈들 다 찾아가서 한방씩 먹여주고 니조카(호박)한테 큰소리 뺨치고 싶지. 회사 때려치고 집구석에서 내가 벌어드주는 돈으로 살림이나 해. 알았어?(〈왕가네 식구들〉, 2013).

〈왕가네 식구들〉에서 유일하게 가정의 문 안으로 들어온 아버지인, 새로운 부성성을 상징하는 세달은 녀살 좋게 떡볶이를 만들고 동네 주민회에서 다른 주부들과 어울려 살림살이 노하우를 전수받을 정도로 새로운 부성성에 적응하고 있는 듯 보였으나 결국 “내가 벌어드주는 돈으로 살림이나 해”라고 부인에게 말할 수 없는 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부성성을 받아들이는 존재였다. 따라서 세달이 맡은 ‘새로운 아버지’의 역할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에서의 경제력을 상실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떠맡은 역할이다. 게다가, 이 드라마는 아버지가 가족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의 생물학적 성과는 무관하게 사회의 가사노동에 대한 비하를 감내해야 하며, 생계부양자가 된 부인의 끊임없는 통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세달의 ‘새로운 아버지 되기’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부성성의 극복이라기보다는 그간 저지른 악행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강하다.

〈왕가네 식구들〉에서 경제력 상실을 극복하고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과 가정 안에서의 아버지 역할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내는 듯 보이는 인물로는 수박의 남편 민중이 있다. 성공한 사업가로 아름다운 수박과 결혼하여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민중은 아내에게 자상하고 아이들에게 다정한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하지만 사업이 기울면서 민중의 삶에도 변화가 시작된다. 더 이상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민중은 수박으로부터 버림받고 아이들은 처갓집에 방치된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택배 배달을 시작한 민중은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전업주부인 수박에게 아이들을 돌볼 것을 요구하고 방치된 아이들을 자신이라도 틈틈이 보살피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민중이 육아에 적극적인 친밀한 아버지 되기는 쉽지 않고, 그 결과 전업주부이면서 가족 특히 아이를 돌보지 않는 수박에 대한 원망은 깊어진다.

결국 수박이 취업을 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민중은 유일한 생계부

양자의 위치를 상실하고 공동생계부양자가 된다. 수박의 취업으로 자녀의 양육은 장모의 몫이 되는데 이에 대한 민중의 입장은 수박과의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

민중: 중지 우리 애야. 당신은 중지 엄마고 (...) 아무리 바빠도 애들한테 신경 좀 써. 미리 스케줄 조절해서 월차라도 내고 갔어야지. 당신이 돈 버는 이유가 뭐야?

수박: 뭐?

민중: 자식 위해 돈벌이 다닌다면 정말로 자식 위한 게 뭘줄 모르겠어? 요즘 당신 하는 거 보면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더라(〈왕가네 식구들〉, 2013).

민중은 이 드라마에서 한시적으로 경제력을 상실하지만 능력 있고 아이들에게도 자상하며 집안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대변한다. 하지만 그러한 민중도 수박의 직장생활이 가정생활과 마찰을 일으키는 순간 “도대체 돈은 왜 버냐”는 질문을 던지며 여성이 육아와 가사의 1차적 책임자임을 상기시킨다. 극의 설정 상 이미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수박의 육아에 대한 무관심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고, 밖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집안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여성 — 집안일과 직장생활을 완벽하게 해내는 호박과 대조되는 — 에 대한 비난과 분개²⁾는 정당화되었다.

이상적인 여성성을 상징하는 민중이 보여주는 ‘새로운’ 여성성도 경제력

2) 〈왕가네 식구들〉의 막장드라마 논란의 중심에는 수박의 캐릭터가 있었다. 아이와 남편을 돌보지 않고 외도를 일삼는 이기적인 캐릭터인 수박은 드라마 초기부터 시청자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는 캐릭터였다. 수박에 대한 분노는 수박이 모든 것을 잃고 어려움을 겪으며 개과천신을 하는 극의 전개 속에서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최종회에서 수박이 해외 유학 이후 유명 핸드백 디자이너로 승승장구한다는 결말에 대하여 시청자들은 수백 개의 게시판 의견을 달며 불만을 토로하였다(『뉴스엔』, 2014.2.2; 『스타뉴스』, 2014.3.31; 『파이미디어 TV리포트』, 2014.2.17).

을 회복하는 순간 다시 전형적인 가부장적 부성성으로 복원된다는 점에서 〈왕가네 식구들〉의 다른 아버지들의 부성성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새로 이 맡은 사업의 성공과 함께 생계부양자로서의 입지를 회복한 민중은 가족에 소홀하고 외도를 일삼는 수박과 결별하고 이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전통적인 어머니상을 유지해온 첫사랑 순정과 재결합한다. 순정은 민중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민중 모르게 키워왔으며 민중이 수박과 사이에서 얻은 애지와 중지도 모두 자기의 아이처럼 살뜰히 보살핀다. 사업 실패 후 아이를 등에 업고 퇴근하는 부인을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려야했던 민중은 가족의 생계부양자로서의 입지가 회복되는 순간 드라마에서 가장 ‘현모양처’형 모성에 가까운 여성을 아내로 받아들여 즐거운 가정으로 때맞춰 퇴근하는 문 밖에 선 아버지로 복귀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이 순식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애지와 중지의 양육방식에 대한 의견을 내며 ‘새로운 아버지 되기’를 시도했던 민중은 순정과 의 갈등을 경험한 후, 아이의 훈육은 어머니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문 밖으로 물러난다.

결국 〈왕가네 식구들〉에 등장하는 여러 아버지들은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부성성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공유한다. 적극적인 가사노동에의 참여와 육아에의 개입은 가족의 유일한 생계부양자로서의 능력이 손상되었을 때 한시적으로 일어나는 혹은 한시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현상으로 왕봉, 세달 그리고 민중 모두에게 곤혹스럽거나(왕봉), 서글프거나(세달), 어쩔 수 없는(민중) 선택이다. 따라서 〈왕가네 식구들〉의 아버지들은 자녀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하여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려는 ‘새로운 부성성(New Fatherhood)’을 추구하지도 메트로섹슈얼리티를 통해 부성성을 재해석하려 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강제된 부성성의 변화를 곤혹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고 혹은 견뎌낸다. 결국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강제된

부성성의 변화는 ‘바람직한 부성성의 진화’가 아니라 경제력을 확보는 즉시 탈출하고 싶은 불편한 환경이 된다.

전업남편, 육아를 무시하는 비정한 엄마, 자녀가 뱃속의 아이를 잃을 정도로 구박하는 어머니 등 〈왕가네 식구들〉은 파격적인 설정들을 시도하여 막장드라마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그러나 부성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이러한 파격적인 설정은 매우 보수적이고 주류적인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한 충격장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48.3%의 높은 시청률과 오래간만에 등장한 국민드라마라는 평가는 파격적 설정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에게 당시 사회를 투영하는 메시지들을 성공적으로 전달하여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왕가네 식구들〉에서 묘사된 확장된 부성성의 이중성은 우리 사회가 강조하는 다정하고 친밀한 부성성의 이면에 가족이라는 공간 안에 떠밀려와 그 공간 밖의 세계를 끊임없이 지향하는 가부장적 아버지들이 존재함을 제시한다. 또한, 아버지의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강제된 부성성의 확장이 가져온 아버지들의 갈등과 혼란을 반영한다.

6. 결론: 강제된 부성성의 확장과 탈출을 꿈꾸는 아버지

가족의 문 밖에 서있던 아버지가 문 안으로 들어와 진정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평등의 시각에서도, 자녀의 성장발달을 고민하는 교육사회학적 관점에서, 메트로섹슈얼적 남성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모두 바람직한 일인 동시에 필요한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나아가 옳다고 여겨져 왔던 많은 사회현상들의 이면에 구조적 원인들이 있었고, 때때로 이러한 원인들로 인하여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억압의 기

제로 변환 역사적인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모성애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여성이라면 당연히 느낄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모성애에 대한 맹목적 긍정은 모성애가 역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가 되는 데에 일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소위 ‘긍정적인’ 부성성의 확장에 대해서도 세심한 연구와 조심스런 태도가 필요하다. 친구 같은 아버지와 친밀한 부성의 출현은 맹목적으로 긍정하고 동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이후 의미를 평가해야 하는 사회현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사회현상으로서의 부성성 확장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부성성의 확장이 아버지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고찰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산업화시대와 신자유주의시대를 대표하는 국민드라마인 〈여로〉와 〈왕가네 식구들〉에 묘사된 부성성을 고찰하였다.

두 드라마의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부성성의 확장은 경제구조의 변화, 즉 남성이 더 이상 유일한 생계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경제 구조의 출현이라는 조건 하에서 남성들에게 강제된 사회현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왕가네 식구들〉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한 ‘새로운’ 아버지들은 유일한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것과는 다른 형태의 부성성을 시도한다. 하지만 경제력의 약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온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아버지들은 다시 경제력을 회복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게 되며, 이들에게 이상적인 부성성은 여전히 〈여로〉의 최주사가 상징하는 가족 밖에서 가족을 관할하는 전통적인 아버지의 그것이다. 이처럼 〈왕가네 식구들〉과 〈여로〉를 관통하는 전통적인 아버지상에 대한 흥미가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의 울타리 속으로 떠밀려온 새로운 아버지들에게 부성성의 확장은 자아실현이나 성평등 혹은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한 부성성의 자발적 전환

과는 거리가 멀다.

지오반니 가르치올리의 작품, 〈가족사진〉의 아버지는 문턱에, 즉 문 안과 밖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있다. 엘리가 문 안과 문 밖을 자유로이 오고가는 부성성을 현대 부성성의 특징이라고 보았다면, 〈여로〉와 〈왕가네 식구들〉에 등장하는 한국의 부성성은 문턱에 서서 적극적으로 문 밖으로 나서지도 흔쾌히 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가깝다. 문 안에서 서서 문 밖을 바라보는 답답한 어머니의 모습만큼이나 문턱에 서있는 아버지의 모습도 아슬아슬하다. 대표적인 아버지 육아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가족 밖에 머물던 ‘슈퍼맨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두 드라마 속의 아버지는 문턱에 서서 고민하는 아버지와 가까웠으며, 오늘날 이러한 아버지들이 경험하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바와 현실 간의 괴리는 심도 깊은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다. 문 밖에서 경제력을 훌륭하게 발휘하면서 동시에 아이와 주말을 내내 보낼 수 있는 에너지도 시간도 갖지 못한 많은 아버지들은, 모성애가 강제되는 사회에서 어머니들이 슈퍼우먼의 굴레 속에서 그러하듯이, 확장된 부성성에 동화하지 못하는 현실을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강조하는 부성성 확장이 가진 강제성을 공론화함으로써 아버지들의 개인적 고뇌와 갈등을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치환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새로운 아버지 되기’ 혹은 ‘친밀한 아버지 되기’로 대표되는 부성성의 확장이 전통적 가부장적 부성성의 극복 없이 강제되는 현실에 주목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고민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강제된 부성성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일상 속 아버지들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현대 한국사회의 부성성에 수반되는 강제성과 그럼에도 발견되는 자발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논의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이수(2011), “남성부양자 가족의 균열과 지속: 변화경로와 쟁점에 대한 고찰”, 『가족과 문화』, 제23권 4호, 123-145쪽.
- 김정환·이선이(2014), “한국 30대 고학력 남성들의 아버지상과 아버지 역할 실천방식에 대한 연구”, 『가족과 문화』, 제26권 3호, 71-104쪽.
- 백선기·김남일(2006), “방송을 통해 표출된 김건모 노래 가사의 신화와 이데올로기: ‘남성성’ 유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13권, 69-110쪽.
- 살즈먼, 매리언·이라 마타시아·앤 오라일리 외(2006), 『남자의 미래』, 이현주 옮김, 서울: 김영사, Salzman, M., I. Matathia, and A. O'Reilly, et al.(2006), *The Future of Men*, New York: St. Martin's Griffin.
- 이남섭(1973), 『여로』, 서울: 인문출판사.
- 이동욱(2014), “아버지 양육 담론의 한계와 대안적 부성: 행복한 가족과 친구 같은 아버지를 넘어서”, 『젠더와 문화』, 제7권 2호, 147-180쪽.
- 이란·백선기(2016), “육아 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부성성 연구: MBC <아빠 어디 가>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호 1권, 107-120쪽.
- 이재림·김지애·이윤주 외(2012),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과 자녀의 발달 특성의 관련성 메타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7권 1호, 151-173쪽.
- 전혜경·김병석·김재철 외(2012),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미치는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3권 3호, 1233-1252쪽.
- 정금자·박미라(201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도덕성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제80권, 43-64쪽.
- 조은(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 싱글로벌 모자녀 가족 사

- 레 연구”, 『경제와 사회』, 제64권, 148-173쪽.
- _____(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가족 정치의 지형: 계급과 젠더의 경합”, 『한국여성학』, 제23권 2호, 1-40쪽.
- 채진영(2013),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중학생의 자아관이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1권 1호, 39-48쪽.
- 한국방송공사(1977), 『한국방송사』, 서울: 한국방송공사.
- 함인희(1997), “현대사회 아버지상의 재발견”, 『가족과 문화』, 제2권, 1-24쪽.
- Messner, M. A.(1996), “Changing Men and Feminist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Politics of Manhood: Profeminist Men Respond to the Mythopoetic Men's Movements*, ed. M. Kimmel,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pp. 97-111.
- Rimer, J. T. (2014), “Wartime and Postwar Drama”, in *The Columbia Anthology of Modern Japanese Drama*, eds. J. T. Rimer, M. Mori, and M. C. Poult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77-188.

〈신문 기사〉

- 『뉴스엔』, 2014.2.2, “‘왕가네’ 막장 오현경, 불륜피해자 행세 ‘분통’”.
- 『스타뉴스』, 2014.3.31, “‘힐링’ 오현경 “‘왕가네’ 수박 역, 딸이 창피해 해”.
- 『파이미디어 TV리포트』, 2014.2.17, “[TV줌인] ‘왕가네식구들’ 결말에 대처하는 시청자들의 자세”.

〈인터넷 자료〉

- 윤석진(2014), “왕가네 식구들, 일그러진 욕망에 대한 변명”, http://www.kbs.co.kr/end_program/drama/kingsfamily/about/plan/index.html(검색일: 2017.07.12).
- 한국방송공사(2013), “기획의도”, http://www.kbs.co.kr/end_program/drama

/kingsfamily/about/plan/index.html(검색일: 2017.07.12).

Elie, P.(2015), "Fatherhood Apart" in New Yorker, <https://www.newyorker.com/culture/photo-booth/fatherhood-apart>(검색일: 2017.08.20).

〈시청각 자료〉

이남섭(연출), 이남섭(극본), 〈여로〉, KBS1 TV, 일일연속극, 1972.04.03.
-1972.12.29.

진형욱(연출), 문영남(극본), 〈왕가네 식구들〉, KBS2 TV, 주말드라마, 2013.08.31.
-2014.02.16.

(논문 투고일: 2017.10.31, 심사 확정일: 2017.12.04, 게재 확정일: 2017.12.15)

〈Abstract〉

Fathers on the Threshold: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Fatherhood in Korean Dramas

Park, Yun Joo* · Kim, Taehyung**

Current Korean society demands that fathers who have traditionally been on the edges of the family community should enter more into it, as in the image of ‘New Fatherhood’ portrayed by various mass media. This paper examines the causes of such transformation of fatherhood in Korea and the fathers’ reactions to the change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two national dramas, *Yeo-ro* and *Wanggane Siggudeul*, which respectively reflect the eras of industrialization and neoliberalism. Findings show that the expansion of fatherhood witnessed today is a social phenomenon produced by a neoliberal economic structure under which men can no longer be the sole breadwinner of the family. Furthermore, fathers who are thus brought into the realm of domestic labor constantly long for the restoration of patriarchal fatherhood. By revealing the involuntary nature of this expansion of fatherhood, this research offers an opportunity to enhance the debate regarding fatherhood beyond the normative level and provides a basis for further research on the diverse reactions of fathers in everyday life to such forced expansion of their roles.

Key words: fatherhood, industrialization, neoliberalism, *Yeo-ro*, *Wanggane Siggudeul*

* Lead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panish and Latin America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merican Studies, Keimyung University